

이화여대·숙명여대·영남대 'U-테크밸리' 협약

기사입력 2019/03/15 11:00 송고

우수 연구·논문 창업유도...최대 30억원 지원



'U-테크밸리' 협약

왼쪽부터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,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, 서길수 영남대 총장, 정윤모 기보 이사장 [기술보증기금 제공]

(부산=연합뉴스) 이종민 기자 =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.

기술보증기금은 15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이화여대, 숙명여대, 영남대와 「U-테크밸리」 협약을 맺었다.

이로써 U-테크밸리 협약대학은 서울대, 포항공대, 한국과학기술원 등 60개 대학으로 늘어났다.

U-테크밸리는 대학 내 연구원, 교수 등이 연구한 논문 속 우수기술을 산업화하는 대학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말한다.

대학이 우수기술이나 대학 내 스타트업 기업을 기술보증기금(기보)에 추천하면 기보는 창업교육·보증·투자·인증·컨설팅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토털서비스를 지원한다.

연구, 논문 속에 머물던 우수기술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제2벤처붐을 일으켜 보자는 취지다.

기보는 우수기술 창업화에 최대 30억원을 보증하고 기업공개(IPO)까지 지원한다.



기술보증기금

이날 협약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,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, 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 양측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정 이사장은 "혁신기술만 있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기반을 선진화해 나갈 것"이라며 "U-테크밸리 협약대학을 매년 확대할 방침"이라고 말했다.

ljm703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19/03/15 11:00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